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상생적 인식 전환이 관건

- 공제 부금 620억원 규모로 성장 · 퇴직 공제금 27억원 지급 등 성과 나타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동이 빈번하여 노무 관리가 어려운 근로 특성을 가진 건설 일용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에는 이행 당사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크게 부족하였으며, 특히 IMF 구제금융 시기여서 건설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이유로 1998년의 경우 공제 계약 체결 사업장 수가 119개, 복지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 수가 1,011명, 퇴직 공제금 지급을 위한 기금 재원인 공제 부금 수납액이 1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넘어서면서 제도 이행 주체인 사업주, 발주자, 근로자들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공제 제도 추진 성과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한 지 만 4년이 지난 2001년 10월 말 현재 추진 실적은 공제 계약 체결 사업장 수가 1,923개, 복지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 수가 20만 3,825명, 공제 부금 수납액은 6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2,846명에게는 27억원에 달하는 퇴직 공제금이 지급되는 등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근로자들에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 사업주도 궁극적 수혜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이제 서서히 정착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 제도가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의 본사 또는 현장에서 공제 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공제 계약 체결, 복지 수첩 발급, 공제부금 납부 등 그 이행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사 현장의 경우 관리 담당자의 무관심 또는 업무 소홀 등으로 공제 제도가 부진한 현장도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주지하다시피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깊은 뜻이 있다. 즉, 직접적으로는 일용 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이라는 수혜가 돌아가지만 간접적으로 사업주들도 공사가 보다 견실 시공되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건설 사업주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에 있어 중심 축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건설 사업주들이다. 건설 사업주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이 증대되거나 반감될 수도 있다. 건설 사업주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건설 사업주들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공사 현장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아래 다음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사 현장별로 퇴직 공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고용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보다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1일을 근무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복지 수첩 발급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건설 근로자 복지 수첩 발급 신청서를 수시로 작성해 공제회에 제출토록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자도 복지 수첩을 발급받아 퇴직 공제금의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사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부금비는 공사비 성격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를 위한 복지 비용으로 근로자들의 몫이므로 미사용한 잔액은 발주자에게 다시 반납하게 된다

공제 계약 · 수첩 발급 · 공제 부금 수납 현황

(단위 : 건, 매, 천원)

구분	공제 계약 체결	복지 수첩 발급(최초)	공제 부금 수납액
총계	1,923	203,825	62,072,594
공공 건설 공사	1,837	195,503	60,384,918
공동주택 공사	86	8,322	1,687,676

주 : 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임.
자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는 점을 명심하고, 원가 반영된 퇴직공제 부금비는 전액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원수급인 퇴직 공제 업무 담당자는 하수급인 담당자에 대하여 퇴직 공제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출력 인원을 조사하여 복지 수첩 발급 여부 등 이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퇴직 공제 업무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자 교육 또는 안전 교육 등 집합 교육시 퇴직 공제 업무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당해 현장이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복지 수첩 발급 등에 대하여 계도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복지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공제 제도의 운영상 제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 처리 방법을 간소화하거나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공사 현장 관리 담당자들의 공제 업무 수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복지 수첩 발급을 공제회가 직접 공사 현장으로부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아 발급된 복지 수첩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설공제조합 등 대행 기관에서만 복지 수첩 발급 업무를 취급하였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1일 공제 부금액은 2,000원으로 1년에 25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게 될 연간 퇴직 공제금은 50만원 정도이다. 이는 전 업종 평균 퇴직금인 16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제회는 1일 공제 부금액을 상향하여 근로자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 현장 이동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퇴직 공제금 수혜의 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모든 건설 공사로 확대하는 방향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공제제도는 이행 주체인 건설 사업주가 법령에서 부여한 공제 업무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이 개선될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건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제도개선팀장

신간 안내

건설업 용어 · 약어 해설

임성율 지음/노문사 펴냄/701쪽/30,000원

건설 관계 법령과 공공공사 계약 · 공사 입찰 및 부동산 관계 업무를 비롯한 각종 건설업 용어들과 경제 용어, 그리고 시사성 있는 약어 등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했다. 부록으로 조달청 PQ.적격 및 행정자치부 적격심사 세부 기준과 건설업 등록 기준 등을 수록했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것이 이 책의 특징.

리츠란 무엇인가?

이소한 외 지음/박영률출판사 펴냄/400쪽/25,000원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된 리츠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리츠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약간은 변형되었다. 이 책은 한국 실정에 맞는 리츠 제도를 고민한 책이다. 부동산 투자 제도인 리츠의 개념에서부터 한국의 리츠 제도, 미국 · 호주 · 일본의 리츠 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리츠 회사 설립과 운용까지 리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나홀로 부동산 경매 박사

장인태 지음/신원문화사 펴냄/592쪽/10,000원

법원 실무를 통해 바라본 실전 부동산 경매 안내서. 부동산 경매의 의의, 경매 신청 방법, 압류 절차, 환가 절차, 배당 절차 및 경매 세부 절차를 상술했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경험한 법원 실무를 토대로 판례 및 법령들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부록으로 경매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첨부했다.